

<5 · 18문학상 신인상 시 분야 수상작>

야생화

고(故) 전옥주를 외치며

송용탁

여기는 반도의 변방입니다

이정표를 잃고 리어카는 계속 돕니다

저는 붉은 꽃이 핀 화분을 옮기는 중입니다

착검이 거친 빨처럼 자랄 때

아우와 누이들이 들꽃으로 피었습니다

누군가 나를 모란꽃이라 부릅니다

나는 따뜻한 남쪽에서 피는 꽃입니다

제가 살아 있어서 부끄럽습니다*

울창하게 살아 있어서 미안합니다

불온한 목숨을 증여합니다

무성한 저의 숲을 거닐어 주세요

풀숲에 몸을 뿌리째 묻고

대답 없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곳

화분은 작은 숲이 되었습니다

숲들이 모여 한 계절이 됩니다

행진곡이 아니어도 좋아요

아리랑을 불러주세요

입마개를 걸고 노래를 불러주세요

리어카가 광장을 돕니다

계속 돕니다

* 고(故) 전옥주님의 연설에서 인용